

20개론 전하는 자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2010. 01. 11. (월)

채주명 (성빛교회, 인천예술단교육자)

(20개론 강의 준비를 끝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심정을 제대로 전하기엔 너무 부족한 실력이라 울면서 이렇게 밖에 준비 못해서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맞지.

내가 되어 전하는 것이 오죽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냐마는 잘 들어보아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먼저 나와 의논을 하고 영감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여라.

주일, 수요말씀을 토대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시대에 맞게 그 주에 맞는 방향으로 전해야 그 영혼이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역사를 더 느낄 수 있다.

가장 큰 영적인 방향이기에 방향을 가르쳐주어야 더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생명을 위해 기도해주어라.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고 마음이 느껴지게 된다.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영 혼 육의 방향을 잘 살피며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전해보아라.

연습을 하고 음율과 심정을 맞춰 강약을 주며 심정의 골을 깊이 타야 한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더욱 마음껏 역사 할 수 있다.

강의를 하다보면 내가 내 심정 전하고 있음이 느껴질 것이다. 때론 내가 너를 통해 신입생에게 하고 싶은 말, 시대를 외치는 말, 사랑의 말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준비, 예비.

내가 강의하고 심정 다 쏟을 수 있게 너의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사랑일체, 마음일체, 행동일체 되어야 하며 너의 재능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박한 성경의 지식과 말씀의 인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알겠지?

너희들이 내 몸이 되어 전하려면 나의 말씀, 나의 설교, 그리고 성경에 대해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한마디로 역사하기도 하니 꼭 기도하고 나와 일체되길 구하고 바라여라.

선생이 어떻게 나와 일체 되어 말씀을 전하려 했었는지 많은 선배들에게 들어보아라.

알겠지. 안녕 예수가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택하고 계획하여 환경을 만들어 이 말씀 듣게 길을 자꾸 만들어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원래 내가 올 길이 아닌데 이 길로 오니 신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와서 들어보니 내가 찾아 헤맸던 곳이 아니더냐.

나도 너를 찾아 행복이요, 기쁨이야.

너도 나를 만나 행복이다. 황홀이지.

이제 우리 만난 것에만 만족하진 그 사랑 깊고 깊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랑 전하려고 2000년 전에 내 아들 보냈고, 이 시대는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여 나의 사랑 전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지 알아다오. 귀인도 만날 것이고 천인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살릴 것이니

그 사랑 느껴보아라.

그동안 멀리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보다, 부모보다 더 아실까?

사랑하실까?” 싶었느냐.

이 말씀 들으면 너만 보고, 너만 사랑했던 내 깊은 사랑 깨닫고 놀랄 것이다.

아~ 설레는 이 내 마음.

내가 말씀 듣기 시작하는 순간 더 커져

내 마음 어찌할까 모르겠구나.

아~ 나의 신부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 보듯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 들어보아라. 알겠지?

사랑한다. 사랑해. 영원히.

내가 사랑해 줄테니 너의 영혼 나에게 맡겨보아라.

알겠지. 안녕. 여호와로다.